

회충 0% 운동



소진탁

한국위생동물협회 명칭이 1964년 3월 31일 기생충박멸협회(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신)로 바뀌면서부터 기생충예방과 치료 행사가 본격화 되었다.

그 명칭에 있어 박멸(撲滅)하면 때려 없앤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보다는 관리(管理)라는 용어가 더 신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이왕이면 돈을 높여야 적극성을 띤다는 측의 의견에 따라 결국 박멸협회로 낙착되었다. 다음해인 1965년도부터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회충 0%” 운동이 전국 규모로 전개되었는데 당시의 통계로는 기생충 감염율이 90%를 상회하였고 회충 감염자만도 60% 내외인지라 슬로건치고는 멋이 있었으나 신중성이 없고 허황스럽다는 비판론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해마다 봄, 가을에 실시되어온 기생충예방 주간의 집단검사, 집단구충사업 행사는 기생충구충과 더불어 기생충의 해독을 주민들에게 은연중 인식시키므로 계몽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 보고된 기생충이 종별 숫자로 보아 50여가지나 되는데 왜 하필이면 회충만 골라 박멸운동의 표적으로 삼았는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한국에 분포된 기생충을 역학적(疫學的)으로 분류하면 많은 수가 토양전파성(土壤傳播性)인 것으로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등 패류매개성(貝類媒介性) 또는 조충류 등 육류매개성(肉類媒介性)인것, 사상충, 말라리아 원충 등 곤충(昆蟲)이 매개하는 것 등이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회충, 십이지장충 등은 우리나라 기생충의 주종을 차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구충제도 여러 종류의 기생충을 동시에 구충할 수 있는 제품들이 1960년대부터 개발되었는데 당시 많이 사용하던 피란텔제는 회충의 경우에도 물론이고 십이지장충, 편충 등에까지도 집단구충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한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한 구충제가 동시 감염된 다른 종류의 장래 기생충도 구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분뇨를 채소재배에 비료로 사용하던 60~70년대의 보건당국이나 기생충학자들의 관심사는 분뇨의 합리적 관리, 채소의 위생적 처리에 집중되었다. 이 과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술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생충박멸협회는 60년대 중반 청정채소(淸淨菜蔬) 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정채소란 시각적인 깨끗한 채소가 아니라 인분을 쓰지 않은 채소 즉 기생충이 묻어 있지 않은 채소로서 협회는 전국적으로 시범마을을 설정해가면서 계몽사업도 겸하였다. 호텔, 대형식당 등 접객업소들에 인기가 대단하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러나 불쾌한 경험도 있다. 6·25 수복후에도 미8군에서는 채소를 우리 시장에서 사지 않고 항공편을 이용하여 주로 일본에서 들여 오던 때였다. 음료수까지도 비행기로 날라다 마시는 그들인지라 한국산 채소에 무조건 병원세균이나 기생충들이 묻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당시였다. 한번은 한 미군장교가 찾아왔다. 자기들도 협회에서 보장해준다면 청정채소를 지정하는 농장에서 구입하겠으니 소개해 달라기에 능곡 근처의 한 시범단지를 소개하였다.

이 채소밭은 연세대학교 기생충학교실의 기생충예방 시범부락과도 연관되어 있어 채소밭에는 소변 또는 화학비료만을 시비하였을뿐 아니라 이미 군데군데 토양 재료를 채취·조사하였는데도 회충난자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고 혹 있다해도 변성된 것이어서 그 밭에서 산출되는 채소를 청정채소라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얼마후에 그 장교가 찾아와서는 무슨 보고서 용지를 내 앞에 내놓았다. 자세히 보니 한국산 채소의 기생충란 오염상태 보고지였다. 검사처는 도쿄에 있는 미육군 406시험소였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검사물이고간에 결과는 NC였다. NC다 무어나고 몰었더니 numerous to count 즉 기생충난자(주로 회충난자)가 너무 많아 헤일 수 없다는 약자라고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회충란이 많기로써니 헤일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경멸하거나 그곳 채소업자와 결탁한 조작이 아니고서는 같은 재료를 두고 우리 실험실 성적과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에게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사람에게는 의례있는 것으로만 알려졌던. 그 회충이 30년이란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1991) 가을 이리시외의 한 농촌국민학교 아동 241명 기생충검사에서 회충양성자는 단 1명뿐이었는데 이는 1990년도 전국 국민학교 아동들 회충 감염율 0.5%보다도 낮은 성적임에 이제는 그 회충 0% 운동이 실현성 없는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싶다. ㉞

(필자=원광의대 교수)